

수입차 안전 옛말?

브레이크 없는 리콜 사태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recall)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수입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만4천561대가 리콜된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리콜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리콜 증가는 외제차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산차의 리콜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입차는 시장 점유율 확대 바람을 타고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지난해 판매차 4대당 1대 리콜=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차의 강제 리콜은 1만3천706대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7천593대)에 비해 80.5%(6천113대)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체 수입차(5만3천390대)의 25.7% 수준이다. 지난해 판매량만을 감안한다면 국내에 수입된 차량 4대중 1대 이상이 리콜된 셈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의 리콜 대상이 5천531대로, 수입차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중형세단 '아코드' 연료펌프 오작동으로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이유로 4천261대나 리콜하는 등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다.

이어 크라이슬러가 1천500대를 리콜한 것을 비롯, ▲폭크스바겐(1천223대) ▲포드(1천222대) ▲렉서스(769대) 등의 순이었다.

크라이슬러는 지프 '그랜드체로키'의 제동 결함 가능성, 폭크스바겐은 '파사트'의 와이퍼 모터 작동 불량 가능성 등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포드는 '이스케이프'의 ABS 오작동 가능



포르세 '카이엔'

▲리콜이란=차량의 안전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가 관련 제품을 수리·교환해 주는 제도. 제조사가 스스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명령하는 '강제 리콜'이 있다.



캐딜락 'CTS'

수입 판매차 작년 4대 중 1대 리콜 체면 구겨 안전관리 비상...국산차 리콜은 줄어드는 추세



성, 렉서스는 'GS300'과 'IS250'의 연료가 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리콜 이유였다.

올 들어서도 수입차의 리콜은 멈추지 않고 있다. BMW코리아는 최근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과 파워스티어링 등을 작동할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320i'(632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포르세도 지난 3일 '카이엔' V6 모델의 연료공급관이 차체와 닿아 기름 유출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1대를 리콜했다.

이에 앞서 GM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오일 유출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다며 'CTS', 'STS', 'SRX' 등 410대를 리콜했다.

◇수입차 시장 점유 급증-리콜도 6년새 12배나 늘어=수입차 리콜은 2001년 1천225대에서 지난해 총 1만4천561대로 12배나 늘었다.

이처럼 수입차 리콜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2001년 7천747대에서 지난해 5만3천390대로 늘어나 6년새 6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의 차량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 리콜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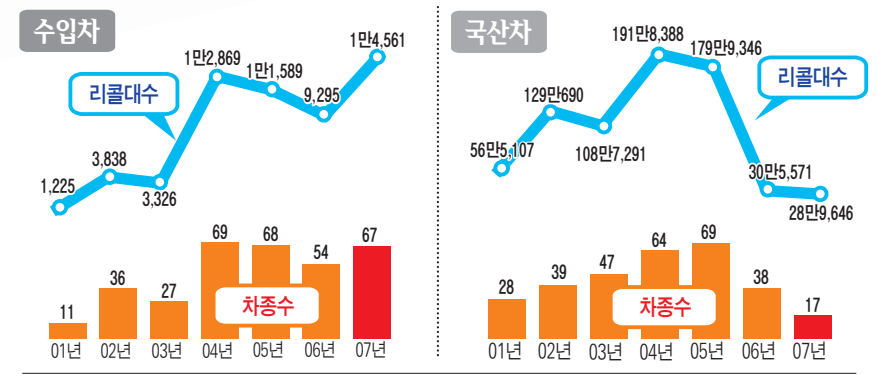
특히 수입차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의 실제 수리율인 시정률이 52.1%에 그쳤다. 리콜 대상 수입차 2대 가운데 1대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셈이다.

반면 국산차의 리콜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산차의 리콜은 2001년 56만5천107대에서 지난해 28만9천646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시



폭크스바겐 '파사트'

■자동차 리콜대수 추이(단위:대)



자료: 국토해양부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2-722-0100

10215300-9448